

사무직 여성을 위한 유니폼스타일 평가 —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을 중심으로 —

양 승진

상지대학교 병설전문대학 의상과

Evaluation of Types of Female Workers' Uniforms — Appropriate, Functional, and/or Power Look —

Seung-Jin Yang

Dept. of Apparel Design Sangji Junior College

(1997. 4. 2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ypes of uniforms which were considered as appropriate, functional, and/or power look. Also,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of a pantsuit for uniforms was examined.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subjects were asked to select appropriate, functional, or power look among combinations of: 1) two types of jackets with different shoulder width(natural, wide) and two types bottoms(pants, skirt); 2) blouses with three different collars(ribbon, convertible, tailored) and two types of bottoms (pants, skirt).

The majority(89%) of subjects were 185 male and 182 female white-collar workers. For the ststistical analysis, Chi-square, one-way ANOVA, and t-test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 1) For a uniform, a skirted suit was considered as being appropriate and powerful, and pants were regarded as being functional.
- 2) A jacket with natural shoulders was viewed as an appropriate and functional uniform, and a jacket with wide shoulders as power look.
- 3) A blouse with a convertible collar was regarded as an appropriate and functioal uniform, and a tailored collared-blouse evaluated as power look.

I. 서론

사회환경과 성역할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력 증가를

가져왔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관리직, 간부직, 전문직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직업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의복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 여성들은 직업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능력있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양면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직장여성 의복의 적절성이라는 개념은 남성을 위한 것인가 또는 여성을 위한 것인가에 그 근거를 두는 듯하다.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사무직 여성들에 대하여 스커트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시킬 수 없도록 하는 州法案의 시행에 관한 신문보도(중앙일보, 1995년 1월 10일자 7면)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 수년 전부터 남녀 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래 사원들의 복장 자유화가 더욱 확산되는 추세라는 보도(동아일보, 1994년 2월 15일자 17면)는 직장내에서의 여성의복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직 여성들의 유니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유니폼에서 벗어나 과감한 패션감각의 도입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조선일보(1995년 2월 3일자 7면)에 보도된 동화은행은 여직원들이 유니폼으로 스커트나 바지를 입의로 선택해서 입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유통업체에서의 바지형태 유니폼 시도 또는 일부 대기업에서 유니폼을 폐지하고 평일에는 정장, 토요일에는 캐주얼복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유니폼 폐지의 방송보도는 관습적인 유니폼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능성을 고려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유니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디자인 분야에서 유니폼 디자인 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 직장 여성의 의복에 관한 사회심리 면인 관련 연구들은 직업 역할 수행에 적절한 의복의 중요성 또는 남성적-여성적 의복스타일 착용자의 직업역할 지각과 성역할 태도의 영향 등이다.

본 연구는 직장 여성 의복의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무직여성을 위한 유니폼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1) 사무직 여성 유니폼 평가에 따른 적절하고, 기능적이며, 유능하고 권위있게 인지될 수 있는 의복유형을 탐색하고, 성별에 따른 유니폼 평가의 차이를 밝힌다.

2) 유니폼 유형의 평가와 패션관심 및 일상복에서 바지수용과의 관련성을 밝힌다.

3) 바지형태의 유니폼에 대한 사무직 여성 근무복으로써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II. 문헌 고찰

직업복의 중요한 평가기준은 직업을 위한 적합성과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적합성의 정의는 실용적(기능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로 한정될 것이다. 직업복의 개념으로서 유니폼과 비지니스 수트에 관한 문헌 내용들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업복의 적절성과 기능성, 유능·권위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업복의 적절성

직업복의 적절성은 지위의 적합성에 따른 남성적-여성적 디자인의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Cash(1985)¹⁾는 관리직(중간 관리자 이상)과 사무직(nonmanagerial office worker) 여성의 직위(status) 지각에 있어서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단서를 제시했다. 그는 관리직을 나타내는 단서들 중에 하나로 테일러드 자켓(스커티드 수트), 테일러드 블라우스를, 사무직의 단서로 부드 럽거나 타이트한 스웨터, 깊게 파인 목선, 프릴달린 블라우스 등을 예로 들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착용자가 다양한 직업에 있어서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한 특성들을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스커트차림의 정장스타일이 이상적인 근무복으로 평가되었다. 김원옥(1984)²⁾은 직업 여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수트 또는 스웨터와 블라우스 배합의 6가지 유형으로 자극물을 조작하고, 제시된 의복유형을 자신의 근무복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착용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의복 유형별 의복 규범 및 실제 착용도 현황에서 전문직, 사무직 모두 여성형과 남성형의 중간형인 혼합형(테일러드 자켓+셔츠 칼라 블라우스+맞주름 H라인 스커트) 디자인과 스커트 차림의 정장형 스타일을 이상적인 근무복으로 평가하였고, 이 유형들의 실제 착용도도 높았다. 김광경(1991)³⁾의 연구결과에서도 극단적인 남성적 스타일의 수트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업에서 조차도 부적합한 것으로 났다.

2. 직업복의 기능성

Workman & Johnson(1993)⁴⁾은 McJimsey(1973)

의 견해를 인용하여, 의복에서 활동의 자유로움은 남성다운 의복으로 생각했고, 신체적 활동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성적 의복(slacks)을 입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19세기 여성들은 여성이 남성의 비지니스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은 혼히 남성 의복의 요소들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남성복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더 실용적인 적용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남성 신분에 대한 보수적 상징들과 직업적 동료 의식의 전통적 상징들을 적용시켰다⁹⁾.

1970년대 초에 팬츠수트는 일시적으로 직장복으로써 인기가 있었지만, 많은 여성들은 동료들과 고객들이 바지를 남성적 또는 비공식적인 차림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패션 역사가인 Ann Hollander는 스커트로 된 테일러드 수트가 여성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사무적으로 보이는 남성적 이미지를 함께 창조했다는 것을 지적했다¹⁰⁾.

3. 직업복의 유능·권위성

McCracken(1988)¹¹⁾은 유행학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맥락외에 문화적 맥락을 포함시켜 유행행동의 상징적 동기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한 예를 미국의 전문직 여성의 직업복에서 찾았다. 즉, 여성이 전문직에서의 성공적 성취를 위해 나약한 드레스로부터 탈피해서 남성 비지니스 수트를 채택했으며, 그 동기는 상위집단에 대한 동일시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힘과 권위를 갖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Fraser(1981, p. 228)는 성공을 위한 관리직 여성의 의복 도식(scheme)으로 무릎길이의 직선적 스커트, 엄격한 테일러드 수트, 넓은 어깨로 대변되는 단순화(simplification)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1985년에 뉴욕 타임즈(1985년 10월 20일자 business section)는 "big shoulders project power"라고 큰 어깨는 힘을 나타냄을 선포했다. 자켓에 심지를 데어 확실히 넓어진 어깨선은 남성적 big shoulder silhouette을 창조했다¹²⁾.

문헌들은 여성의 직업적 능력이나 권위를 나타내주는 의복으로써 스커티드 수트를 언급하고 있다. Molloy(1977)¹³⁾는 직업여성이 어떻게 입어야 성공적이고, 실제 나약하고 신용이 없어도 능력과 위엄, 신용있어 보이게 하는 의복은 유행을 지나치게 따르지 않는 것, 그

러나 지나치게 초라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엄을 나타내는 것과 매력적인 것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이며, 그 방법은 비싸지만 전통적인 스커티드 수트를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Hollander(1977)¹⁴⁾는 힘있고 성공적인 여성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스커트로 되돌아 갔으며, 비지니스와 전문직 남성들의 성공을 위한 색상, 베이지, 자켓이 있듯이 성공적인 여성을 위해서는 스커트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로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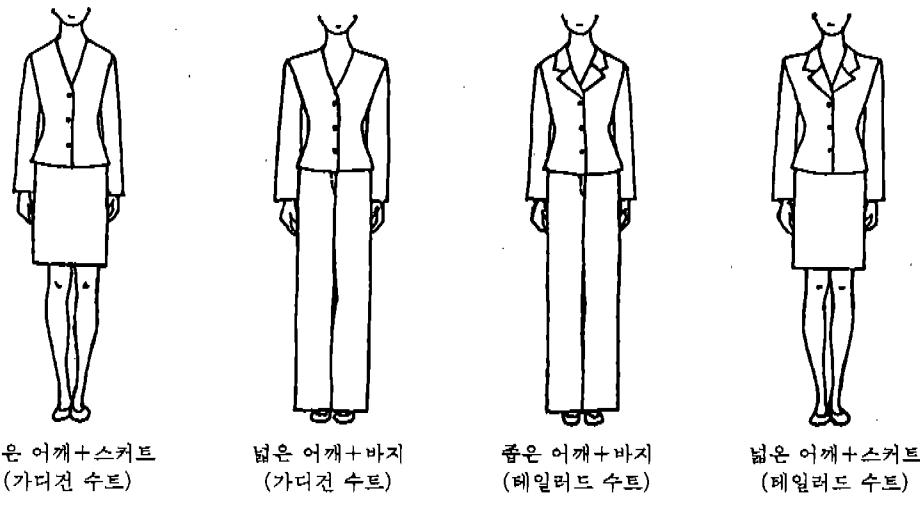
1) 사무직 여성 유니폼 유형에 대한 평가: 자극물과 응답 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은 3유형(가디건수트, 테일러드수트, 블라우스와 조끼에 하의 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한 포즈와 크기의 선그림(line drawing)으로 하의, 어깨넓이, 블라우스의 칼라(collar)를 조작하였다.

자극물 1, 2는 수트형으로 구성되었다. 자극물 1은 가디건 수트(cardigan suits)로 collarless 자켓에 하의(스커트 또는 바지) 배합이며, 자극물 2는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s)로 테일러드 자켓에 하의의 배합이다. 각 유형은 두 수준으로 어깨넓이(넓은 어깨 또는 좁은 어깨)와 하의(스커트 또는 바지)를 조작하였다. 따라서 자극물 1은 4개의 가디건 수트, 자극물 2는 4개의 테일러드 수트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대표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자극물 3은 블라우스와 조끼에 하의의 배합으로 구성되었다. 3종류의 칼라가 있는 블라우스(리본칼라, 커버터블칼라, 테일러드칼라)에 동일한 베스트와 2종류의 하의(스커트 또는 바지) 배합으로 총 6가지이며, 대표적인 유형은 [그림 2]와 같다.

이상의 자극물을 사용한 근거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장여성 의복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트(스커티드 수트, 팬츠 수트)와 일반 사무직 여성의 유니폼으로 많이 착용되는 블라우스와 베스트에 하의를 배합한 것이다. 수트 유형의 선정은 예비조사 당시 직장여성



[그림 1] 자극물 1, 2: 수트형 유니폼

의복으로 많이 입혀지고 있었던(가디건 수트와 테일러드 수트) 것이며, 기능적이고, 유능·권위적 모습(power look)은 하의의 유형(스커트, 바지)과 어깨의 넓이(넓음, 좁음)를 변수로 하였다. 수트형 자켓의 디자인은 유행 경향을 고려하여, 실루엣과 V-zone, 단추의 위치, 칼라 모양을 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디자인은 생략하였다. 블라우스는 유니폼의 블라우스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칼라(collar) 형을 기초로 隱-陽선상에서 3가지(리본칼라, 카라터틀칼라, 테일러드칼라)를 포함시켰다. 하의의 스타일에서 스커트는 H line스커트이고, 바지는 스커트와 동일한 실루엣을 위해 일자형으로 하였다. 자극물 유형의 선정은 1차로 전문가(7인의 의류 또는 의상디자인과 교수)들의 자문을 얻어 3유형의 자극물을 선정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2차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유니폼 평가를 위한 적절성은 직장 상황에서 직책이나 업무 수행자에게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며, 기능성은 업무수행에 있어 기능적 모습, 유능·권위성은 직업적 유능함이나 권위, 신용있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를 위한 응답 문항은 자극물 1(어깨넓이와 하의를 조작한 가디건 수트 4가지)의 선그림을 동일 면에 제시하고, 1) 유니폼의 적절성은 사무실(또는 영업장) 안의 여직원 유니폼으로 가장 적절한 모습을, 2) 유니폼의 기능성은 업무 수행에 가장 기능적인 모습을, 3) 유니폼의 유능·권위성은 자극물 중 가장 유능하고 권

위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4가지 중 하나씩 선택하게 하였다. 자극물 2(어깨넓이와 하의를 조작한 테일러드 수트형 4가지), 자극물 3(블라우스 칼라와 하의를 조작한 블라우스의 배합형 6가지)도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설문지에 제시된 3종류의 자극물을 각각에 대하여 모두 평가하였으며, 또한 선택의 강요를 피하기 위해 '없다' 항목을 두었다. 그림 자극물의 평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항목의 응답자를 제외한 통계처리 결과이므로 각 표의 응답자 수는 동일하지 않다.

2) 유행 관심

유행 관심은 유행에 대한 관심 정도, 의복구매시 유행을 고려하여 유행되는 스타일을 입고자 하는 것을 측정한다. 강혜원(1974)¹⁰⁾에서 10문항을 선택·수정하였고,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계수 .77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바지수용도

바지수용도는 일상적인 여성 의복으로써 바지 착용에 대한 견해를 측정한다. 본 연구를 위해 9문항을 개발하였으며,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바지 착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s Alpha 계수 .81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자국물 3: 블라우스와 조끼에 하의배합

2. 자료수집, 표집대상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1995년 10월 초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 야간부 직장인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행하였으며, 그 결과 축정도구의 신뢰도가 낮은 문항과 그림 자국물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 설문지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 중순 11월초 총 410부를 배부하여, 400부가 수집되었으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67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은 367명으로 남자 185명, 여자 182명이며, 직장인이 89.4%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92.6%가 20~30대이며, 직장인의 직책은 일반 사무직 49.4%, 전문 기술직 30.0%, 중간 간부직 및 중역 13.7%, 기타 7.6%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유니폼 유형의 평가

본 연구 문제에 따른 유니폼 유형의 적절성, 기능성 및 유능·권위성에 관한 평가 결과는 각 자국물의 평가에 대하여 빈도와 χ^2 검증을 하였으며, 결과는 첫째로 수트형(가디건 수트와 테일러드 수트), 두번째로 블라우스 조합형에 대하여 유니폼의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의 평가, 그리고 이 세 측면을 통합한 평가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1) 수트형 유니폼의 평가

<표 1>은 가디건 수트형, <표 2>는 테일러드 수트형 유니폼에 대한 3측면(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의 평가 결과를 조사대상을 남, 여, 전체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2>의 χ^2 검증 결과 각 유형의 4가지 스타일 사이에는 3측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성: 수트형 유니폼의 적절성 평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2가지(가디건과 테일러드) 수트형 모두에서 각 스타일 선택빈도에 차이를 보여 스커트와 배합된 수트 상의가 바지와 배합된 상의보다 적절성 평가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중에서도 좁은어깨 자켓에 스커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넓은어깨 자켓에 바지 착용의 선택이 가장 낮았다. 이를 하의를 기준으로 볼 때, 수트의 유형이나 어깨의 넓이와는 관계없이 스커트와 함께 배합한 스타일의 평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80% 이상) 적절성 평가에서 하의의 스타일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깨넓이에서 볼 때, 2가지 수트 모두 좁은어깨를 좀더 적절하게 평가하였으며, 어깨넓이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테일러드 수트는 스커트와의 배합에서 차이($\chi^2=12.1^{**}$)를 보여 좁은어깨(63%)를 넓은어깨(37%)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가디건 수트의 경우 빈도는 낮으나 바지와의 배합에서 차이($\chi^2=5.4^{*}$)를 보여 좁은어깨를 더 적절한 유니폼으로 평가하였다.

적절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2수트형 모두 어깨넓이와 관계없이 바지 배합 스타일에서 였으며, 여자는 바지 배합을 남자보다 좀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테일러드 수트의 넓은어깨에 스

커트 배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넓은어깨에 스커트 배합을 좀더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2수트형 모두 어깨넓이에 따른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성차는 없었다.

<표 1> 가디건 수트형 유니폼에 대한 평가: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성별	자극물 종류 평가	가디건 수트				Chi-Square 검증
		좁은어깨 +스커트 명(%)	넓은어깨 +스커트 명(%)	좁은어깨 +바지 명(%)	넓은어깨 +바지 명(%)	
남	적절성(n=178)	84(47)	77(43)	12(7)	5(3)	117.6**
	기능성(n=175)	40(23)	32(18)	65(37)	38(22)	14.6**
	유능·권위성(n=165)	44(27)	73(44)	13(8)	35(21)	44.9**
	소 계	168(97)	182(105)	90(49)	78(46)	
녀	적절성(n=174)	73(42)	58(33)	27(16)	16(9)	48.5**
	기능성(n=172)	12(7)	16(9)	88(51)	56(33)	90.3**
	유능·권위성(n=145)	19(13)	59(41)	32(22)	35(24)	23.0**
	소 계	104(62)	133(83)	147(89)	107(66)	
전체	적절성(n=352)	157(45)	135(38)	39(11)	21(6)	157.5**
	기능성(n=347)	52(15)	48(14)	153(44)	94(27)	82.4**
	유능·권위성(n=310)	63(20)	132(43)	45(15)	70(23)	55.4**
	계	272(80)	315(95)	237(70)	185(56)	

**p<.01

a : 응답자는 남 185, 女 182명이며, '없다' 항목을 제외하였으므로 자극물에 따라 전체 빈도수가 다르다.

<표 2> 테일러드 수트형 유니폼에 대한 평가: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성별	자극물 종류 평가	테일러드 수트				Chi-Square 검증
		좁은어깨 +스커트 명(%)	넓은어깨 +스커트 명(%)	좁은어깨 +바지 명(%)	넓은어깨 +바지 명(%)	
남	적절성(n=178)	91(51)	69(39)	13(7)	5(3)	119.4**
	기능성(n=176)	55(31)	32(18)	59(34)	30(17)	15.6**
	유능·권위성(n=161)	46(29)	67(42)	15(9)	33(20)	35.7**
	소 계	192(111)	168(99)	87(50)	68(40)	
녀	적절성(n=168)	82(49)	45(27)	24(14)	17(10)	60.9**
	기능성(n=162)	14(9)	22(14)	81(50)	45(28)	66.8**
	유능·권위성(n=138)	24(17)	52(38)	30(22)	32(23)	12.8**
	소 계	120(75)	119(79)	135(86)	94(61)	
전체	적절성(n=346)	173(50)	114(33)	37(11)	22(6)	171.7**
	기능성(n=338)	69(20)	54(16)	140(41)	75(22)	51.4**
	유능·권위성(n=299)	70(23)	119(40)	45(15)	65(22)	39.6**
	계	312(93)	287(89)	222(67)	162(50)	

**p<.01

a : 응답자는 남 185, 女 182명이며, '없다' 항목을 제외하였으므로 자극물에 따라 전체 빈도수가 다르다.

기능성 : 수트형 유니폼의 기능성 평가는 2가지 수트형 모두 각 스타일에 따라 선택빈도에 차이를 보여 성별에 차이없이 좁은어깨에 바지 배합을 가장 기능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하의 스타일에 있어 바지가 스커트보다 기능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켓 스타일에서는 좁은어깨를 넓은어깨보다 더 기능적인 유니폼으로 인지하였다.

기능성에서 성별의 차이는 2수트 모두 스커트 배합에 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가디건 수트의 경우 어깨넓이에는 관계없이 스커트 착용에서, 테일러드 수트는 좁은어깨에 스커트 배합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기능적 유니폼으로 스커트 배합의 선택빈도가 좀 더 높았다. 한편 어깨넓이에 따른 의미있는 성차는 없었다.

유능·권위성 : 수트형 유니폼에서 유능·권위성의 평가를 볼때, 2가지 수트형 모두에서 각 스타일에 따라 선택빈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넓은어깨 자켓에 스커트 배합을 가장 유능하고 권위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수트형 모두 바지보다는 스커트를, 좁은어깨 보다는 넓은어깨의 자켓을 유능하고 권위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유능·권위성에서의 성차는 2수트형 모두 좁은어깨와 하의 배합에서였다. 즉, 유능·권위성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은 남자는 좁은어깨에 바지 배합, 여자는 좁은어깨에 스커트 배합에서였다. 한편 어깨넓이에 따른 남녀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 수트형 유니폼의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평가를 전체적 백락에서 볼때, 2가지 수트 유형의 비교는 3측면의 평가에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즉 2수트형 다같이 적절성은 좁은어깨에 스커트 배합을, 기능성은 좁은어깨에 바지 배합을, 유능·권위성은 넓은어깨에 스커트 배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성차를 보인 것은 모든 경우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바지를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성차가 없는 것은 어깨넓이에 따른 평가였다.

<표 1, 2>와 같이 이 3가지 측면의 선택빈도를 모두 합하여 볼때, 남자는 2수트형 모두 상의의 어깨넓이에는 관계없이 배합된 하의 스타일에 따라 평가의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는 스커트와의 배합을 두드러지게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중에서 가디건수트는 넓은어깨, 테일

러드 수트는 좁은어깨와 스커트 배합이었다. 한편 여자의 경우 테일러드 수트에서는 하의 스타일에 따른 평가 차이가 없었으나, 가디건 수트의 좁은어깨의 경우 바지와의 배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어깨넓이에 따른 평가 차이는 2수트형 모두 바지배합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여자는 넓은어깨보다 좁은어깨에 바지 배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수트형 유니폼 각 스타일에 따른 3측면의 평가를 통합해 보면, 수트형에는 관계없이 가장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좁은어깨 자켓에 스커트착용의 경우는 적절성에서, 넓은어깨에 스커트 착용의 경우는 적절성과 유능·권위성, 좁은어깨에 바지 착용은 기능성에서였다.

2) 블라우스, 베스트와 하의 조합형 유니폼의 평가

<표 3>은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에 대한 3측면(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의 빈도 및 χ^2 검증 결과와 3측면을 합산한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블라우스, 베스트와 하의 조합형의 평가결과 분석 및 논의에서 자극물의 각 스타일 언급은 간략하게 블라우스의 칼라형과 하의 종류로만 구분하였다.

적절성 :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의 적절성 평가는 전체로 볼때, 6가지 유형중 컨버터블칼라에 스커트 배합과 테일러드칼라에 스커트 배합이 유사하게 선택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리본칼라에 스커트 배합형의 순이었으며, 가장 선택빈도가 낮은 것은 리본칼라에 바지 배합이었다.

하의의 2스타일중 응답자의 80% 이상이 바지보다 스커트 배합을 유니폼으로 적절하다고 인지하였으며, 상의 블라우스 칼라의 효과는 바지와의 배합에서만 차이 ($\chi^2=14.3^{**}$)를 보여 컨버터블 칼라 선택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선택빈도를 보인것은 리본칼라였다.

적절성에 대한 성차는 테일러드 칼라에 바지 배합 ($\chi^2=8.9^{**}$)을 제외하고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 경우도 선택빈도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해석의 한계가 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바지배합의 선택이 좀더 많았다. 상의 통제시 하의 스타일에 따른 차이는 바지 배합에서만 남녀 차이 ($\chi^2=10.2^{**}$)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좀더 바지를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블라우스 칼라 효과의 성차는 없었다.

기능성 :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의 기능성 평가는 전체적으로 6유형중 컨버터블칼라에 바지배합의 선택빈

<표 3>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 평가: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성별	자극물 종류 평가	리본칼라 +스커트 명(%)	컨버터블 칼라+스커트 명(%)	테일러드 칼라+스커트 명(%)	리본칼라 +바지 명(%)	컨버터블 칼라+바지 명(%)	테일러드 칼라+바지 명(%)	Chi-Square 검증
남	적절성(n=184)	53(29)	54(29)	59(32)	4(2)	11(6)	3(2)	121.0**
	기능성(n=176)	26(15)	31(18)	38(22)	9(5)	47(27)	25(14)	28.4**
	유능성(n=160)	29(18)	34(21)	55(34)	7(4)	18(11)	17(11)	53.1**
	소계	108(62)	119(68)	152(88)	20(12)	76(44)	45(26)	
녀	적절성(n=181)	41(23)	52(29)	45(25)	5(3)	22(12)	16(9)	56.8**
	기능성(n=174)	16(9)	20(11)	10(6)	9(5)	67(39)	52(30)	102.9**
	유능성(n=149)	15(10)	29(19)	29(19)	7(5)	17(11)	52(35)	50.3**
	소계	72(42)	101(59)	84(50)	21(13)	106(62)	120(74)	
전체	적절성(n=365)	94(26)	106(29)	104(28)	9(2)	33(9)	19(5)	167.9**
	기능성(n=350)	42(12)	51(15)	48(14)	18(5)	114(33)	77(22)	94.3**
	유능성(n=309)	44(14)	63(20)	84(27)	14(5)	35(11)	69(22)	62.7**
	계	180(52)	220(64)	236(69)	41(12)	182(53)	165(49)	

**p<.01

a : 응답자는 남 185, 녀 182명이며, '없다' 항목을 제외하였으므로 자극물에 따라 전체 빈도수가 다르다.

b : 유능성은 유능·권위성을 줄인 것임.

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테일러드칼라에 바지 배합이고, 가장 낮은 선택은 리본칼라에 바지 배합이었다. 전체적으로 하의 스타일에서 바지를 스커트보다 더 기능적인 유니폼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블라우스 칼라의 효과는 바지 배합에서만 차이($\chi^2=67.3^{**}$)를 보여 컨버터블 칼라를 가장 기능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리본칼라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

기능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테일러드 칼라와 스커트 또는 바지 배합에서 였으며, 남자는 스커트, 여자는 바지 배합을 더 기능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하의 통제시 하의 스타일에 따른 성차는 여성은 바지 배합, 남성은 스커트 배합에서 선택빈도가 높았다. 한편 기능성에서의 블라우스 칼라 효과는 성차가 없었다.

유능·권위성: 유능·권위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 응답에서 볼 때, 테일러드칼라에 스커트, 테일러드칼라에 바지, 컨버터블칼라에 스커트 배합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선택빈도를 보인것이 리본칼라에 바지 배합이었다. 상의 통제시 하의 스타일에 따른 차이($\chi^2=17.2^{**}$)를 보여, 바지보다는 스커트를 유능하고 권위적인 것으로 인지하였다. 또한 하의 통제시 블라우스 칼라에 따라 평가의 차이를 보여, 스커트 배합($\chi^2=12.6^{**}$), 바지 배합($\chi^2=39.2^{**}$) 모두에서 테일러드

칼라를 가장 유능하고 권위적으로 보았으며, 다음이 컨버터블 칼라의 순이었다.

유능·권위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테일러드칼라에 스커트 또는 바지 배합형이었다. 즉, 남자는 테일러드칼라에 스커트의 선택이, 여자는 테일러드칼라에 바지의 선택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또한 리본칼라에 스커트 배합에서도 성차($\chi^2=4.5^{*}$)를 보여 남자의 선택이 좀더 많았다. 한편 상하의 통제시 스커트 배합은 남자, 바지 배합은 여자가 높았으며, 블라우스 칼라에 따른 성차는 없었다.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적절성과 기능성 평가는 블라우스 보다는 하의의 영향이 좀더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절성은 스커트배합, 기능성은 바지배합의 평가가 높았다. 또한 유능·권위성 평가는 하의 스타일과 함께 칼라의 효과도 영향이 있어 스커트 또는 테일러드 칼라가 가장 유능·권위성이 높았다. 한편 성차가 두드러진 것은 테일러드 칼라에 바지 배합을 여성이 남성보다 48%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테일러드칼라에 스커트 배합은 남성이 여성보다 38%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3>과 같이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 평가에서 3가지 측면을 다함께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만족시키는 유

니폼 유형은 테일러드칼라 블라우스에 스커트 배합과 컨버터블칼라 블라우스에 스커트 배합이었다.

유니폼 유형의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 첫째로, 하의 스타일의 영향은 사무적 여성 유니폼의 적절성 평가에서 수트형, 블라우스 조합형 모두 바지보다는 스커트 배합이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김원옥, 1984; 김광경, 1991)에서 전문직, 사무직 모두 스커트형 정장을 이상적 균무복으로 평가하였고, 실제 착용도도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조사 당시는 pantsuit가 유행이고 바지형 유니폼도 시도되어, 연구자는 바지가 일반 여성복으로써 정착되어 기능적인 바지형의 실제 유니폼으로 수용 가능성성을 예측했었으나, 적절성 평가에 의한 바지형 유니폼 수용이 극히 부정적(조사 대상자의 20% 미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대상이 주로 20~30대 젊은층인데도 사무적 여성 유니폼으로써 스커트의 선호를 반영하며, 한편 여성복 하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고, 직장에서의 사무적 여성의 바지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며, 또는 전문직이나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유니폼으로써의 생소함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유니폼의 기능성 평가 결과에서 수트형과 블라우스 조합형 모두 전체적으로 바지를 기능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바지 착용에 따른 작업시의 기능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때문이며, 또한 남성적 의복 품목인 슬랙스가 신체활동의 자유로움과 관련된다는 McJimsey (1973)의 견해를 지지한다.

유능·권위성 평가에서 2가지 유니폼 유형 모두 스커트가 바지보다 유능하고 권위적인 의복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의복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바지착용이 반드시 남성적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지가 기능성 평가에서는 높았으나 적절성이나 유능·권위성 평가에서는 스커트에 비해 낮았던 결과는 사무적 여성 유니폼의 조건이 기능성 위주보다는 복합적인 역할 기대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차를 볼 때, 적절성 평가에서 여자의 바지에 대한 평가가 남자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들의 여성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보다 강하며, 여자들은 자신들이 착용하는 유행 스타일인 팬츠를 보다 더 잘 인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능성 평가에서 기능적 유

니폼으로 남자는 스커트 배합의 선택이 좀더 높았으며, 이는 남자는 H라인 스커트에 대한 실제 착용 경험에 없으므로 기능적인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수트형 유니폼의 상의 스타일의 영향은 어깨 넓이에 따른 적절성과 기능성 평가에서 하의의 영향보다는 적으나 좁은어깨의 평가가 좀더 높았다. 이는 사무적 여성원의 유니폼은 powerful하게 보이는 모습보다는 좀더 여성적인 요소들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차를 보인 것은 테일러드 수트의 넓은어깨와 스커트 배합에서였으며, 남자가 넓은어깨에 스커트 배합을 좀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여성은 남성보다 근래 여성복의 스타일인 좁은어깨가 눈에 익숙하므로 넓은어깨의 적절성 평가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유능·권위성 평가는 넓은 어깨 효과가 컸으며, 특히 스커트와 배합되었을 때 더 유능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적절성이나 기능성 평가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유능·권위성을 전문적 career의 모습과 동일하게 인식하며, 스커티드 수트가 전문적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관리직의 외모단서로 스커티드 수트를 제시한 Cash(1985)의 연구결과, 성공을 위한 의복에 대한 Molloy(1977), Hollender(1977) 등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2수트형 자켓의 칼라 디자인에 따른 평가는 통계적으로 두드러지게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는 테일러드 수트의 칼라가 유행스타일의 짧고 캐주얼한 감각으로 특히 조사 당시의 유행 경향을 고려하여, 3 buttons의 V-zone이 좁은 편이었으므로 남성적 이미지가 적기 때문이다.

세째로, 블라우스 조합형의 상의 스타일의 영향은 블라우스 칼라에 따라 의미있는 평가의 차이를 보여, 적절성과 기능성은 바지 배합 스타일에서 컨버터블 칼라 블라우스 배합을 높이 평가했고, 한편 유능·권위성은 스커트와 바지 배합 모두에서 테일러드 칼라 블라우스 배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남성적-여성적 디자인 선상에서 중간형이 적절하고 기능적으로 평가되었고, 자극을 중 가장 남성적 스타일이 유능·권위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리본칼라의 평가가 두드러지게 낮았으며, 이는 측정도구의 리본칼라가 기본형으로 지나치게 여성적이며, 근래 유니폼으로 많이 착

용되는 비대칭 등의 다양한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네째로,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평가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이 세 측면을 만족시키는 유니폼 유형은 가디건수트는 넓은어깨에 스커트, 테일러드수트는 좁은어깨에 스커트배합 이었다. 하의 유형으로는 스커트형이나 상의형에서는 어깨넓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측정도구로 사용된 자극물이 흑백의 선그림이므로 세부적인 디자인 선의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하의의 효과, 즉 스커트와 바지가 두드러진 디자인의 특징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유니폼 스타일 평가와 유행 관심

유행 관심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행관심의 전체 평균은 29.20, 표준 편차 5.54, 성별에 따른 평균은 남자 29.09, 여자 29.32였다. 조사 대상자 의 유행관심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수트형 유니폼 평가와 유행관심의 관련성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4선택집단들 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상하의 통제후, 상의(좁은어깨 또는 넓은어깨) 또는 하의(스커트 또는 바지) 스타일 선택에 따른 유행 관심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를 보면, 여성들에서만 가디건수트형 유니폼에서 바지선택집단과 스커트선택집단간에 유행관심의 차이를 보여 ($T=3.03^{**}$), 적절한 유니폼으로 바지를 선택한 집단 (Mean=31.37) 이 스커트를 선택한 집단 (Mean=28.76) 보다 유행관심이 높았다. 이는 조사 당시 팬츠수트가 유행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남성은 팬츠수트를 유행의 차원보다는 의복 품목으로만 인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블라우스, 베스트와 하의 조합형 유니폼의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평가에 대한 유행관심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6선택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상하의 통제후, 전체 또는 남·녀 각각을 대상으로 한 T-검증 또는 일원변량분석에 따른 집단들간에 유행관심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관심은 전반적으로는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 평가에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의 90% 이상이 20~30대의 유사한 유행 관심

도를 갖는 연령층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4. 유니폼 스타일 평가와 바지수용도

바지수용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일상복으로써 바지착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바지수용도의 전체평균은 30.31, 표준편차 5.95, 남자의 평균은 27.35, 여자는 33.31이었다. 조사대상자 성별에 따른 바지수용도의 차이를 보여 여성의 바지수용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수트형 유니폼 평가와 바지수용도

바지수용과 수트형 유니폼 평가의 관련성에 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적절성 평가에서 2수트형 각각 4집단간에 바지수용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é (.05) 검증 결과, 자켓의 어깨넓이와 관계없이 바지배합 선택집단이 스커트배합 선택집단보다 바지수용도가 높았다.

기능성 평가에서는 가디건 수트의 경우, 자켓의 어깨넓이와 관계없이 바지 선택집단이 바지수용도가 높았으나, 테일러드수트의 경우 좁은어깨에 스커트 배합 선택집단보다 어깨넓이에 관계없이 바지 배합을 선택한 집단 또는 같은 넓은어깨에서도 스커트보다 바지배합 선택집단의 바지수용도가 높았다.

유능·권위성 평가에서 2수트형 모두 어깨넓이에 관계없이 바지선택집단이 좁은어깨에 스커트 선택집단보다 바지수용도가 높았다. 2수트형의 차이는 가디건수트의 경우 스커트 선택집단 내에서 어깨넓이에 따라 차이를 보여 넓은어깨 선택집단이 바지수용도가 높았으나, 테일러드수트는 스커트 선택집단 내에서 어깨넓이에 따른 바지수용도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바지수용과 수트형 유니폼 평가의 관련성에 있어서 상·하의 통제후, 상의와 하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디건 수트의 유능·권위성 평가에 있어서만 하의의 영향($F=23.27^{**}$) 이외에 상·하의 상호작용의 효과($F=6.17^*$)가 나타났다.

2)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 평가와 바지수용도

바지수용과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 평가의 관련성에 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적절성 평가에서 6집단간에 바지수용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é (.05) 검증 결과, 블라우스형에 관계없이 바지배합을 선택한 집단이 리본 또는 테일러드 칼라에 스커트배합을

<표 4> 수트형 유니폼 스타일 선택에 따른 바지 수용도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평가	자국물 종류	가디건 수트				테일러드 수트			
		좁은어깨 +스커트	넓은어깨 +스커트	좁은어깨 +바지	넓은어깨 +바지	좁은어깨 +스커트	넓은어깨 +스커트	좁은어깨 +바지	넓은어깨 +바지
적절성	N	157	135	39	21	173	114	37	22
	Mean	29.01	29.39	34.18	36.10	29.28	29.50	33.92	34.36
	S.D.	5.61	5.88	4.60	4.52	5.59	5.69	5.45	6.47
	F 값	17.89**				11.38**			
기능성	Scheffé	B	B	A	A	B	B	A	A
	N	52	48	153	94	69	54	140	75
	Mean	26.77	28.02	31.12	32.26	26.84	29.52	31.12	32.36
	S.D.	5.22	5.79	5.78	5.53	4.89	6.13	5.96	5.24
유능· 권위성	F 값	14.29**				13.37**			
	Scheffé	B	B	A	A	CD	BC	AB	A
	N	63	132	45	70	70	119	45	65
	Mean	27.14	29.72	32.56	31.69	27.89	29.73	31.29	31.72
F 값	S.D.	5.31	5.80	5.08	6.07	5.23	6.21	5.25	5.87
	Scheffé	C	B	A	A	B	AB	A	A

**p<.01

a : Scheffé(.05)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점수 크기의 순서는 ABCD순이다.

<표 5> 블라우스 조합형 유니폼 스타일 선택에 따른 바지수용도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평가	자국물 종류	리본칼라 +스커트	천버터블칼라 +스커트	테일러드칼라 +스커트	리본칼라 +바지	천버터블칼라 +바지	테일러드칼라 +바지
		리본칼라 +스커트	천버터블칼라 +스커트	테일러드칼라 +스커트	리본칼라 +바지	천버터블칼라 +바지	테일러드칼라 +바지
적절성	N	94	106	104	9	33	19
	Mean	28.90	29.84	28.63	35.44	35.48	37.05
	S.D.	6.03	4.78	5.77	4.95	4.43	4.58
	F 값	17.18**					
기능성	Scheffé	C	B	C	AB	A	A
	N	42	51	48	18	114	77
	Mean	28.55	29.02	25.94	29.61	31.75	32.57
	S.D.	5.49	4.46	6.31	6.62	5.65	5.50
유능· 권위성	F 값	11.35**					
	Scheffé	B	B	BC	ABC	A	A
	N	44	63	84	14	35	69
	Mean	28.00	29.10	28.33	31.43	31.46	33.03
F 값	S.D.	5.73	5.10	5.80	3.55	6.40	5.56
	Scheffé	B	B	B	AB	AB	A

**p<.01

a : Scheffé(.05)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점수 크기의 순서는 ABCD순이다.

선택한 집단보다 일상복에서도 바지수용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평가에서 컨버터블 또는 테일러드칼라에 바지 선택집단은 블라우스 스타일과 관계없이 스커트 선택집단보다 일상복에서 바지수용도가 의미있게 높았다. 유능·권위성 평가에서 유니폼으로 테일러드칼라에 바지 배합을 선택한 집단이 블라우스에 관계없이 치마를 선택한 집단보다 일상복에서도 바지수용도가 높았다.

이상의 유니폼스타일 평가와 바지수용도는 수트형, 블라우스 조합형 모두 3측면의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하의 스타일과 관련이 있었다. 상의 통제후의 분석에서도 세가지 자극물 모두 적절성, 기능성, 유능·권위성에 있어서 하의 스타일(스커트-바지)에 따른 선택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일상복의 바지 수용도가 높은 사람이 유니폼으로써 바지 평가도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사고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깨넓이에 따라 바지수용도에 차이를 보인것은 유능·권위성 평가에서 가디건수트의 스커트 선택집단 내에서 넓은어깨 선택집단이 좁은어깨보다 좀더 바지수용도가 높았다. 이는 넓은어깨가 좁은어깨보다 남성적 디자인이므로 일상복에서도 남성적 의복 품목인 바지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따른 결론을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무직 여성의 유니폼 평가에서 스커트와 바지, 즉 하의 스타일이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다. 전반적으로는 스커트가 바람직하게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스커트의 평가가 높은 것은 유니폼의 적절성과 유능·권위성에서였으며, 바지의 평가가 높은 것은 기능성 평가에서였다.

둘째, 상의 스타일의 영향으로서 수트형 유니폼의 경우, 적절성과 기능성에서 하의의 영향보다는 적으나 어깨넓이의 영향에서 좁은어깨의 평가가 좀더 높았다. 반면, 유능·권위성 평가는 넓은 어깨 효과가 커으며, 하의가 스커트일때 더 유능하게 평가되었다. 한편 테일러드 수트와 가디건 수트 자켓의 칼라 디자인에 따라 두드러지게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블라우스 조합형의 상의 스타일에 따른 평가에서 블라우스 칼라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적절성과 기능성은 바지 배합 스타일에서 컨버터블칼라 블라우스 배합을, 유능·권위성은 스커트와 바지 배합 모두에서 테일러드칼라 블라우스 배합의 평가가 높았다.

세째, 성별에 따른 평가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하의 스타일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의 남성보다 바지에 대한 평가가 좀더 높았다. 상의 스타일 평가의 차이를 볼때, 수트형 유니폼의 어깨넓이 또는 블라우스 조합형에서 블라우스 칼라 디자인에 따른 두드러진 성차는 없었다.

네째, 사무직 여성의 유니폼 평가에 있어서 패션관심의 영향은 상·하의 통제시, 가디건 수트형 유니폼에서 만 바지선택 집단이 스커트 선택집단보다 유해관심이 높았다.

다섯째, 일상복에서의 바지수용 태도와 유니폼 평가 관계는 전반적으로 하의 유형과 관련이 있어 일상복의 바지 수용도가 높은 사람이 유니폼으로써 바지 평가도 좀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니폼의 평가에 따른 제안으로 기능성 평가에서 바지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성에서는 스커트의 평가가 높았으나 유니폼으로써 바지 정착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과도기적인 제안으로서 같은 디자인을 스커트 또는 바지를 선택해서 입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차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남자를 주로 대변하는 직종에서는 스커트가 바람직하다.

상의 스타일에 따른 평가를 고려할 때, 유능·권위성 평가가 높았던 넓은 어깨의 디자인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예: 금융상담등)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직 여성 유니폼은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 권장된다. 또한 2가지 수트형에서 가디건 수트는 어깨가 넓은 스타일도 무난하나 테일러드 수트에서 넓은어깨는 지나치게 남성적으로 보이므로 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블라우스 조합형의 경우 사무직 여성 유니폼으로는 컨버터블칼라 블라우스, 유능·권위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테일러드칼라 블라우스 배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지스타일의 유니폼 평가에서 3측면중 기능성이 적절성이나 유능·권위성과 반대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측면을 고려한 유니폼 스타일의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1) Cash, T.(1985).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on the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M.R. Solomon(Ed). *Psychology of Fashion*(pp. 343-355). Lexington, KY: D.C. Health Company.
- 2) 김원옥(1984). 「직업여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3) 김광경(1991).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 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Workman, J.E., & Johnson, K.K.P.(1993). Cultural aesthetic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In Lennon, S., & Burns, L. (Eds.), *Social science aspects of dress: New directions*, Special Publication #5(pp. 93-109), Monument, Colorado: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 5) Steele, V.(1989). Appearance and identity, In Kidwell, C.B., & Steele, V. (Eds.).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pp. 6-12),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6) Steele, V.(1989). Dressing for work, In Kidwell, C. B. & Steele, V.(Eds.),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pp. 64-91),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7) McCracken, G.(1988). *Culture and consumption: New approaches to the symbolic character of consumer goods and activitie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p. 92-103.
- 8) Molloy, J.T.(1977).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ner Books. p. 28.
- 9) Hollander, A.(December, 1977). The issue of skirting. *The New Republic*, Vol. 17, pp. 27-28.
- 10)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